변동성 커진 증시… 펀드·대선 테마株에 자금 '우르르'

간접투자로 돌아선 투자자 늘어
주식형 공모펀드 4개월간 순유입
이재명·윤석열 후보 테마주 급등

코스피가 전 거래일(2969.27)보다 9.07포인트(0.31%) 내린 2960.20에 장을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001.35)보다 1.15포인트(0.11%) 오른 1002.50에 마감했다. /뉴시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간접투자인 펀드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대선후보인 이재명·윤석열 테마주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펀드시장은 증시 반등으로 직접투자 선호 현상과 사모펀드 사태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외면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펀드로 자금 유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5조9720억원이었다. 개인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6월 20조5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로 가장 적은 금액이다.

국내 채권형 공모펀드의 설정액은 지난 6월 14일 36조3000억원으로 올해 고점을 찍은 뒤 감소해 지난 4일 현재 32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최근 주식·채권시장의 변동성을 피해 간접투자인 펀드로 자금이 향하고 있다. 지난달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엔 1조2536억원이 유입됐다. 월간 기준으로는 4개월 연속 순유입을 나타내며 이 기간 동안 3조1434억원이 들어왔다. 4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한 것은 2018년 10월~2019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국내 주식형 액티브 공모펀드에도 자금이 유입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국내 주식형 액티브 공모펀드에 4232억원이 들어왔다.

특히 시장 변동성 확대와 함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대기성 자금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연 1%를 밑돌던 3년물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8개월간 100bp(1bp=0.01%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대표 시장 금리인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지난달 27일 연 2.044%로 마감해 3년 만에 연 2.0%를 돌파했다.

대기성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에는 최근 한 달 새 24조4000억원이 유입됐다. MMF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만기 1년 미만 채권 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어 현금성 자산으로 꼽힌다.

지난 5일 주식시장에선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의 테마주가 활기를 쳤다.

지난 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서연과 서연탑메탈은 전일 대비 각각 14.90%과 10.14% 오른 1만7350원, 7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연은 대표적으로 윤석열 테마주다. 서연탑메탈은 서연의 자회사다. 서연은 사외이사 중 한 명이 윤 전 총장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 관련주도 들썩였다. 에이텍티앤은 지난 5일 12.96% 급등한 2만6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이텍티앤은 최대주주인 신승영 대표가 경기도 성남 출신이란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불린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정치테마주로 묶인 상장사가 주가 급등을 반기며 적극 해명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대선 후보의 테마주 열풍은 인물 관련주에서 정책주로 옮겨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암 진단 키트' 큐브바이오 "우회상장 추진"

주주의견 반영 우회상장에 무게
'CB1' 제품 러시아 인허가 남아

큐브바이오가 소변검체 암진단 제품(CB1)의 수출과 우회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CB1에 대한 러시아 보건당국의 인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다.

큐브바이오는 8일 메트로신문에 "회사는 그동안 나스닥 스펙이나 국내 직접 상장을 놓고 고심해 왔으나 CB1의 수출이 가시화된 가운데 주주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상장사를 통한 우회상장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큐브바이오는 러시아 스탠다트-바이오테스트사와 1차수출대금 지급 협약식을 체결하며 CB1의 수출을 가시화했다. 그러나 현재 CB1은 러시아 보건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특히 러시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보건당국의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큐브바이오 관계자는 "현재까지 1차 러시아 수주대금만 진행된 상태고, 보건당국의 인허가 여부에 따라 800억원 규모의 2차 발주 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진이 이달 출국해 러시아 보건당국의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승인 기간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당국의 제약·바이오 승인 절차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러시아 보건당국의 허가는 수 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시각이다.

큐브바이오는 CB1 제품의 위탁생산자를 '코스맥스파마'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CB1 제품의 수출인허가 사항에 명기된 위탁생산자는 JW중외메디컬로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수출허가의 위탁생산자 표기 변경은 통사 일주일 내로 변경 가능한 부분"이라며 "전체 수출 일정에 맞춰 코스맥스파마로 변경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큐브바이오는 CB1을 통해 지난 2017년부터 다국가에 수출계약을 발표했지만 현재는 해당 계약들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회사는 지난 2017년 호주 골드코스트 울사와 96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이후 중국 대련이전전매유한공사와 800억원, 싱가포르 캄보디아의 의료전문기업과 400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잇따라 체결해 5개국에서 2000억원이 넘는 매출고를 올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수출 계약건들이 중단된 이유로 "다소 규모가 작은 대행사를 통해 수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 우려돼 중단했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수출 건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바이오 기업이 수출을 진행 할 때 전문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다. 국가마다 다른 수출인허가 조건 등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진단키트 기업인 랩지노믹스는 코로나 진단 키트를 수출할 당시 GS헬스케어가 대행사를 맡아 수출을 진행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임상 데이터 등 까다로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업계에서 관례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대행사를 신뢰하지 못해 다국가의 수출을 중단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큐브바이오와 러시아 '스탠다트-바이오테스트'의 수출 납품 계획은 1차 러시아 수주대금의 50%인 약 90억원을 수령하고, 800억 원 규모의 2차 발주 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포레나 도서관 100호 기념 경품 드려요"

한화건설, 온라인서 추첨 이벤트

포레나 도서관 100호점. /한화건설

한화건설이 포레나 도서관 100호점 개관을 축하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지난 달 29일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시민협력플랫폼 공감'에서 포레나 도서관 100호점을 개관한 바 있다. 포레나 도서관은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만든 공간으로 한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11년간 포레나 도서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한화건설은 포레나 도서관 100호점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한화건설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블로그 댓글을 통해 도서관 개관 축하 및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마트 금액권과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 등을 제공한다. URL을 함께 남기면 당첨 확률이 높다.

한편 포레나 도서관 100호점이 들어선 시민협력플랫폼 공감은 주민과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주민 커뮤니티 복합공간이다. 한화건설은 2층 유휴공간을 쾌적한 독서환경과 다양한 도서를 갖춘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했으며 100호점 옆에는 그네의자와 휴식 테이블 등을 설치한 포레나 공감정원도 조성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KB증권, 비상장 기업 분석보고서 발간

별칭 '케비어'… 1호는 '무신사'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첫 비상장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KB증권 리서치센터는 유망 비상장기업 분석을 위해 지난 10월 신성장기업솔루션팀을 신설한 바 있다.

신성장기업솔루션팀은 이커머스, 모빌리티, 핀테크, 바이오, 그린 에너지 등 다양한 성장 산업의 유망 기업, 특히 우량 비상장기업에 대해 선제적인 리서치를 제공하여 다양한 리서치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B증권은 비상장기업 분석 보고서에 '케비어'라는 별칭을 부여했다. '케비어'는 '케'이비(KB) '비'상장 '어'벤져스의 약자다.

상장기업 대비 정보와 분석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에 대해 캐비어(Caviar) 처럼 품격 있는 보고서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다. 비상장기업 분석 보고서는 해당 기업의 개요, 사업 모델 및 산업 현황, 투자 포인트, 기업 가치, 리스크 등 심도 있는 정보와 분석으로 구성된다.

KB증권의 비상장기업 분석 보고서 1호는 '무신사'다.

KB증권은 무신사가 국내 최대 온라인 패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추고 있으며, PB상품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통해 외형 확대와 수익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자산부채종합관리 도입

신한금융투자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자산운용 컨설팅을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자산부채종합관리'란 금리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퇴직부채의 특성을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반영하여 부채와 자산의 변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운용기법을 말한다.

오는 2022년 4월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DB형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 사내에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립금운용계획서(IPS·Investment Policy Statement)'를 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DB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컨설팅을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 하고 기업의 퇴직부채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분석 정보를 운용 담당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한금융투자의 리서치와 함께 기업 맞춤형 자산배분 솔루션을 제공할 전망이다.

/박미경 기자